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순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에서, 일(1)순은 10 일을 말합니다. 해서 사(4)순이라 함은 40 일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40 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하시는 과정을 성도가 스스로 겸허히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기로 정하고 경건과 절제의 기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과 목적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같은 세상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광야같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영적 시험들에 대해 의식하며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다면 이젠 그 영적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즉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가지 시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받은 시험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어요. 시험의 내용과 순서가 사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먹음직하고... 돌덩이를 떡이 되게하라! 2.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워...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인기와 자랑 명예... 3.보암직도하고... 천하를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첫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하라’ 는 거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하라? 먹거리 문제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지금 이순간 가장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생각, 적게 먹을 생각, 쿠폰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먹을 생각, 많이 먹고 살안찌는 생각, 그러다 먹는 것도 없이 물만 마시는데도 살찌는 생각... 수없이 많은 먹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한다는 거죠. 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 그러면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너의 인기가 높아질거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게 뭐 있어? 니가 원하는 것 바라기도 바쁜데...”라고 우리들을 물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뜻과 계획에만 몰두하게 되는거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멀어지게 되요.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달린 마귀가 여러분 눈 앞에 서 있다면 그 말을 누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원어성경을 보면, 천하 만국과 그 화려함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다. 화려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는 자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또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 무엇이랴 표현하나면, ‘이 세상 임금’ (요 12:31) 또는 ‘세상의 신’ (고후 4:4)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가 부리는 권세가 어느정도지만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영원토록요? 아니요! 끝이 곧 옵니다. 주님의 재림까지요... 해서 마귀는 그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애씁니다. 그 애씀의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말씀을 꺾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아는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년수가 더해질 수록 겸손해져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에 관한 지식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점점 눈이 띄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옳고 그름은 잘 아는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것처럼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튜오인데 그 뜻에는 ‘신실하다, 혹은 증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서 보듯이 믿음은 증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마귀에게도 본때를 좀 보여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나의 높음/내 뜻의 높음/내 성공의 높음’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1:18)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있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출세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목매는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할 때도 신실하게 서있어야 하고, 내가 실패하고 낙오했어도 세상이 끝나는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있어야 하는게 믿음생활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예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에 두셔요.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철저히 보냄 받은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으셔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고, 가장 높은 건물에서라도 가볍게 뛰어 내릴 수 있으시지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지배하실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외로운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증명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일에 일조하려 하십니까? 이 사명과 사역에 동참하십니까?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일이세요. 그가 보내셔서 이루라고 주신 일만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죽으러 보냄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겐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만큼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의 중심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과 글로리아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는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인 빌은 음악이 좋아 작곡을 했고, 아내인 글로리아는 글쓰기 재능이 있어서 시나 에세이 쓰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어느 날, 이들 부부에게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인 빌이 큰 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한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마침 셋째 아이를 임신한 글로리아는 임신한 가운데 남편을 돌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글로리아는 거실에 앉아 평소와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글로리아를 사로잡았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글로리아는 흘린 듯 생과나는 글을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가사를 적어보았으니 당신이 곡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은 부부에게 힘을 주어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곡을 시작으로 많은 찬양을 지어서 네 번의 그래미 상과 스무 번이 넘는 상들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도 인정하든 안하든 마귀의 시험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시험이 있음을 먼저 깨달으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